



한중 교육부 "양국 유학생 출국 자제 합의"

기사입력 2020-02-28 18:46 최종수정 2020-02-29 23:45

중국 유학생 입국·한국 학생 중국 출국 자제 권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 교육부가 자국 유학생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중국 교육부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자국 유학생 보호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과 중국 교육부는 상대방 국가에 유학 중인 자국 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 교육부는 중국 대학 소속 한국인 유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고, 중국 교육부는 한국 대학

소속 중국인 유학생의 출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자국 대학에 유학 중인 상대 국가 학생들에게도 입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약 5만명으로 대부분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학이 개학하면 중국으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교육부가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중국의 대학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와 개학을 연기하고 수업도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렸다.

한중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교육부도 한국 대학이 중국 유학생에게 한국 입국 자제를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학생들의 중국 출국 자제도 권고한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약 7만명으로 이 가운데 3만3000여명이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한중 교육부 간 합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양국은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양국 학생들의 학업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밝힌 대로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학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활성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 해피펫 ▶ 터닝 포인트 2020 구매!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21&aid=0004492296>
